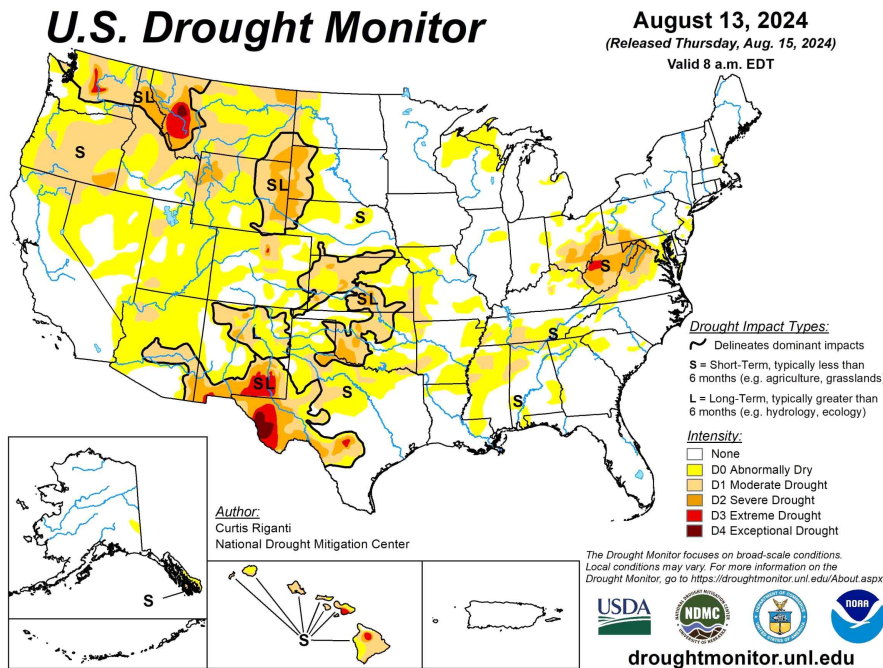




8월 2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34)

□ 미국 기후 현황(8/11-8/17)

중서부 지역에 연속적으로 내린 비가, 주로 주 후반 중에, 종실비대 중인 여름작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수분을 제공했다. 옥수수 지대는, 이 중에서 일부는 최근 몇 주 동안 건조해 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기온이 옥수수와 대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잘 유지되어 또 한 주의 온화한 날씨 덕분에 유익을 얻기도 했다. 지역적인 폭우가 평원, 동부 그리고 남서부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돌발 홍수와 및 큰 우박과 강풍 등의 심각한 기상에 대한 일부 보고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미숙한 작물들은 늦여름 뇌우의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에 국지적인 폭우가 내린 반면 텍사스와 그 주변에는 날씨가 덥고 건조하여 뚜렷이 구별되었다. 이외에, 캘리포니아와 대분지 전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서부 대부분에서는 더 시원한 기상 조건이 우세하였다. 주말에 한랭 전선과 관련된 소나기들이 태평양 북서부에 확산되어서 표토 수분을 증가시켰고 산불 억제 노력에 도움이 되었다. 서부에서는 아직도 50건이 넘는 활발한 산불이 다양한 진압 단계에 있었는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소실된 540만 에이커 중에서 220만 에이커가 이 산불로 인한 것이었다. 미국 서부의 대부분이 상승된 온도에서 벗어나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곳들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 값들이 평년보다 5° F 낮았다. 비슷한 기온(평년보다 최대 5° F 낮은)이 옥수수 지대의 서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미국 남중부는 다시 끓는 기온으로 올라갔고 뉴멕시코 남부의 대부분, 오클라호마 남서부 및 텍사스의 북서부 절반은 주간 평균값이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다.



### □ 농업 현황 요약(8/12-8/18)

동부 해안, 최남부 그리고 남서부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건조했고 반면에 중서부, 미시시피 계곡, 태평양 북서부, 대평원 그리고 로키산맥의 일부는 평년 대비 최소 두 배 이상의 주간 강수량을 기록했다. 미주리와 오클라호마의 몇몇 지점들은 해당 주간 동안 최소 6인치의 비를 기록했다. 한편 해당 주간 미국 남부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따뜻했고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그리고 텍사스의 일부는 평년보다 6°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반면, 대서양 중부 대부분은, 중서부, 뉴잉글랜드 해안, 오하이오 계곡, 태평양 북서부, 중앙 및 북부 평원 그리고 로키산맥의 넓은 부분과 함께, 평년보다 시원했다. 북부 캘리포니아, 다코타 그리고 오레곤에 있는 몇 지점들은 평년보다 4° F 이상 낮은 주간 기온을 기록했다.

### □ 세계 기후 현황(8/11-8/17)

#### ■ 유럽:

심화되어가는 열파가 남유럽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남동부의 가뭄을 악화시켰고 늦게 종실비대 중인 여름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더욱 낮추었다. 스페인 (38-41° C)과 프랑스 남서부 (35-39° C)에서 주초의 더위가 종실 비대 중인 옥수수, 해바라기 및 대두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낮추었다. 모니터링 후반기 동안 한랭 전선이, 그 전선과 관련된 비 (5-50 mm)가 프랑스와 스페인 북동부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이 농경지에 더 시원한 기온을 가져왔다. 비슷한 더위 (섭씨 30도 후반)가 이탈리아에서는 더 천천히 가라앉았는데, 일주일 대부분의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더위 (평년보다 최대 5° C 높음)가 여름작물이 성숙하도록 재촉했다. 이번 여름 두 번째로 유럽 남동부의 강렬한 열파 (38-41° C)가 늦게 종실 비대 중인 여름작물들에 대한 수확 전망을 더욱 낮추었고 가뭄과 다가오는 겨울 작물의 파종을 위한 토양 수분 손실을 악화시켰다. 유럽 남동부의 많은 주요 농경지들은 지난 60일 동안 국지적으로 평년 강우량의 25 퍼센트 미만을 보고했다. 그리스에서는 비슷한 더위와 가뭄이 면화를 재촉하여 평년보다 최대 3주 일찍 성숙하게 했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부터 동쪽으로 평년 이상의 기온 (평년보다 2-5° C 높음)이, 더 북쪽에 있는 대부분의 재배 지역들에는 여름 내내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많은 양의 강우가 있었으나, 종실비대 중인 여름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 ■ 구소련(서부):

건조하지만 시원한 날씨가 지배적이면서 종실비대 중인 북부의 여름작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이 지역의 남부 절반 전역에서 가뭄이 계속되거나 악화되었다. 측정 가능한 강우 (5-25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는 주로 러시아와 벨로루시의 북쪽 일부에 국한되었는데, 종실 비대 중인 봄 곡물들과 여름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을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유지해주었다. 한편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서부 전역에서 가뭄을 악화시켰고 이 농경지 중에서 다수는 지난 60일 동안 평년 강우량의 50% 미만을 보고했다. 남부에서는 옥수수, 해바라기 그리고 대두가 성숙해지고 있거나 성숙한 중에 있었는데, 토양 수분은 다가오는 겨울 작물의 파종과 활착에 심각하게 부족했다. 주말에 동유럽에서 더위 (섭씨 30도 후반)가 침입해 들어오고 있기는 했지만, 모니터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기온이 평균적으로 평년에 가까웠고 러시아 서중부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5° C 낮았다.



■ 동아시아:

최근 홍수 이후 중국의 북부와 북동부 재배 지역 전역에서는 주로 약한 소나기들이 내렸고 다른 한편 남부에서는 강우가 심해졌다. 남부에 내린 그 비 (50 mm 초과)들은 이 지역에서 벼와 기타 작물들을 괴롭힌 가장 최근의 열파 (12일 연속 40° C 초과)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몇몇 작물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지만 최근의 기상이 개선되어 더 이상의 수확량 감소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비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장강 계곡 내에는 더운 날씨 (거의 40° C, 평년보다 약 5° C 높음)가 나타났고, 강우 총량이 25 mm 미만이어서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었으나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질 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한편 최근의 폭우 이후 화북평원에서부터 북동부까지 소나기가 더 계절적인 수준 (최대 25 mm)으로 돌아와서 유지작물들과 조립곡물들에게 넉넉하거나 국지적으로 과도하게 토양 수분을 유지했다. 이 지역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북한의 북부 구역에서는 주초에 내린 폭우 (50-150 mm)가 극심한 습기와 홍수를 일으켰다. 7월 1일부터 내린 강우 총량이 1,200 mm (평년의 250 퍼센트, 이 기간 중 30년 최고치)를 넘었다. 북한 북부의 극심한 습기가 남한과의 국경을 따라 더 유리한 수분 조건으로 빠르게 전환되었고 남한 남부에서는 온건한 가뭄으로 약화되었다. 일본에서는 북동부 해안선 근처에서 일련의 중첩되는 열대 저기압들이 일부 북부 해안 지역들에는 폭우 (50-150 mm 이상)를 그리고 내륙 깊은 곳에 있는 주요 벼 지역들에는 더 유익한 양 (25-50 mm)의 비를 발생시켰다.

■ 호주:

호주 동부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 (10-30 mm)가 밀과 기타 겨울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양호하거나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그 비는 곧 있을 파종 작업에 앞서서 표토 수분과 저장 수준을 더욱 증가시켜서, 이는 일반적으로 매년 9월과 10월 내내 증가한다, 여름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밀 지대 내 다른 곳을 보면, 남쪽과 서쪽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 (5-25 mm)들이 지역의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빅토리아 일부에서는 소규모 건조함이 지속되었는데 비가 더 내리면 지역의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좋을 것이다. 밀 지대 전체에서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만연하여 겨울 작물의 성장을 가속화하였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 C 높았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20도 초중반이었다.

**■ 아르헨티나:**

건조하고 계절에 맞게 시원한 날씨가 그 지역을 지배했다. 측정 가능한 강우 (1-5 mm)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남부의 대표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고 다른 곳들은 완전한 건조함이 지배적이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의 1° C 이내였고 낮 최고 기온은 남부 농업 지역들의 섭씨 10도 후반에서부터 파라과이와의 국경에 가장 가까운 대표지들의 30도 초반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북쪽의 비교적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코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처럼 먼 북쪽에서는 다시 한 번 결빙이 보고되었다. 코르도바를 포함하여 북부와 서부의 많은 생산 지역들의 겨울 곡물들에게는, 계절적 온난화로 인해 겨울 곡물의 발달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봄철 강우가 시기적절하게 시작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브라질:**

남부 밀 지대 전역에서 시원하지만 맑은 날씨가 지배적이었고 작물의 발달 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렸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 C 낮은 범위를 보였다; 파라나처럼 먼 북쪽에서는 야간 저온이 낮은 한 자릿수(섭씨)까지 떨어졌으나 결빙은 외곽 생산 지역에서만 생겼고 온도에 민감한 생육 단계에 있는 밀에게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히우그란지두술 정부에 따르면 8월 15일 현재 밀은, 5년 평균 13퍼센트와 비교하여, 8 퍼센트 개화되었다. 파라나에서는 8월 12일 현재 밀의 거의 80 퍼센트가 개화에 도달했고 20 퍼센트 이상이 성숙했거나 수확되었다; 한편 2기작 옥수수수는 92 퍼센트 수확되었다. 더 북쪽에서는 계절적인 따뜻함과 건조함이 계속되었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8월 16일 현재 면화가 평균 76 퍼센트와 비교해서 57 퍼센트 수확되었다.